



NEWS LETTER OF KOREA CUSTOMS CONSULTING LLC

2019 Jun



본 자료의 무단복제 및 무단도용을 금지합니다.

목 차

· 대한관세법인 소식 -----3page

· (FTA) -----4page

1. '연내 최종타결 목표'...RCEP 회기간 협상 27 일 개최
2. 韓, 영국과 FTA'원칙적 타결'...브렉시트에도 車무관세 수출

· (기타) -----17page

1. 내년부터 주세 개편...캔 맥주 415 원 ↓·병 맥주 23 원 ↑
2. 반도체 포함 '수출 휘청'...경상수지 7 년 만에 적자
3. 산림청-관세청,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4. 김영문 관세청장, 인도와 EODES 구축 양해각서 체결

대한관세법인 소식

■ 영문홈페이지 오픈

대한관세법인은 올해부터 경기도외투기업협의회의 관세분야 협력법인으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더욱이 외투기업에 특화된 법인으로 성장하고자 영문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기존 국문홈페이지를 유지하고, 영문홈페이지를 메인으로 전세계 각국에 대한관세법인을 알리고 고품질의 서비스 및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kocustoms.co.kr

■ 시사매거진 "ISSUE MAKER" 이진용 공동대표관세사 인터뷰

대한관세법인의 이진용 공동대표관세사의 인터뷰가 시사매거진 "ISSUE MAKER" 7 월호에 실렸습니다. 성종대 대표관세사가 공감·배려의 경영이념을 가졌다면, 이진용 대표관세사는 추진·열정이라는 또다른 경영이념으로 조화를 이루어 대한관세법인을 앞장서서 힘있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대한관세법인 이진용 대표관세사

관세에 대한 차별된 솔루션 제공을 위해 정진하다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관세법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젊은 관세법인, 차별화를 보인다

부산 본사와 서울 서지 및 경영진의 각 영역에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한관세법인은 "AEO(종합인증우수기업)체계(세계관세기구(WCO)에 한국 관세법 기준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수출업 법인의 우수기업이다. 대한관세법인은 관세업무의 행정적 부담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며, 피드백 시스템을 이어 관세 기업보다 활발한 소통을 지향한다. 최근 관세행정기 '신' 표준 추진과로 확대된 입출세 사용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대한관세법인은 관세 전문 컨설팅, FTA 컨설팅, 세관 심사 및 조사 컨설팅, AEO 컨설팅, 통관 물류 관리 등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고객에 입장에서 다수의 협력업체와 업무 프로세스 수입, 국세운동, 국세운동 및 자금 등 Door-to-Door System을 구축하여 밀접한 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부산 본사에서 설립된 전 국가별 대리점의 필요에 따라 관세사의 유능한 지원으로 구성된 대한관세법인에 대해 이진용 대표관세사와 대화를 나누었다.

2019년 12월 대한관세법인의 준장을 눈 사장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019년을 맞이해 대한관세법인은 기업에 대한 AEO(종합인증우수기업)체계 및 FTA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업기



**이진용 대표관세사님께서 강요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관세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만 준수 확보로 인한 재정증대에 심각한 문제를 가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시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수출입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및 확인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는 지체 방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대한 관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에만 370여 명의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관세법인은 기존 관세법인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업무에 요구되는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관세청과 정기적인 회의로 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업무, FTA 컨설팅으로 기업이 외국에도 진출하는 중에서도 대한관세법인의 신속한 대응 및 연구, 고객 및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용 대표관세사님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2001년 제1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부터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입 관련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출입 관련 업무 및 관세업무 관련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FTA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이진용 대표관세사님께서 강요하시는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관세는 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기업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서만 준수 확보로 인한 재정증대에 심각한 문제를 가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시 정책과 법률을 바탕으로 수출입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 및 확인작업에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는 지체 방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대한 관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부산에만 370여 명의 관세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관세법인은 기존 관세법인 수출입통관 및 관세와 관련된 업무에 요구되는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관세청과 정기적인 회의로 원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출입통관 및 관세업무, FTA 컨설팅으로 기업이 외국에도 진출하는 중에서도 대한관세법인의 신속한 대응 및 연구, 고객 및 기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직원교육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진용 대표관세사님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2001년 제1회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2002년부터 관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출입 관련 기업체를 방문해서 수출입 관련 업무 및 관세업무 관련 사항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FTA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 기업에 대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로

‘연내 최종타결 목표’...RCEP 회기간 협상 27 일 개최

전 세계 인구 절반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 FTA 의 회기간 수석대표 협상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RCEP)” 제 5 차 회기간 협상이 5 월 27 일부터 31 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문종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 산업부 및 관계부처 대표단 약 40 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상은 2019 년 연내 최종타결을 달성하고자 협상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회기간 개최되는 협상이다. 지난해 11 월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RCEP 협상을 2019 년 최종 타결 한다는 공동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산업부는 해당 협상에서 상품, 투자, 원산지 등 일부 분과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각국은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등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RCEP 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GDP 의 3 분의 1 을 차지하는 메가 FTA 다. 타결 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응 뿐 아니라 아세안·인도 등 신(新)남방정책 주요국가에 대한 교역·투자 확대 및 다변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기간 협상에서는 우리 업계 관심사항 및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스카이데일리

★ KCC 1 분강의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 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 개국의 관세장벽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 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FTA 는 양자간 협정이며 RCEP 는 다자간의 협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RCEP 는 본래 2012 년에 처음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6 년에 타결할것에 합의했으나 이후 일정이 지연되면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협정입니다. RCEP 가 타결된다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의 충돌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또 하나의 거대협정이 출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입 특히 FTA 협정을 맺지않은 국가와의 거래에 큰 변화의 시작이되길 기대해봅니다.

韓, 영국과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에도 車 무관세 수출

오는 10 월 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브렉시트·Brexit)할 것에 대비한 한국과 영국 간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최악에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더라도 교역질서 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와 영국 간 교역 규모는 작년 기준 131 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현재 EU 회원국 중 우리와 교역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영 FTA 협상에 대한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 장관도 "양국 간 교역에 지속성을 마련해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 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영국과 EU 간 협상이 현재와 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로 브렉시트가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는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 에 대한 국회 비준을 오는 10 월 31 일까지 마쳐야 한다. 비준이 마무리되면 11 월 1 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 도 발효돼 적용된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상품관세 부문에서는 한·EU FTA 의 양허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한영 FTA 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관세가 평균 4.73% 부과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분석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 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세율할당은 사전에 정해진 양만큼 수입하는 데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정해진 양을 넘겼을 때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처:매일경제

★ KCC 1 분강의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도출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비준절차에 돌입했으나,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합의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 29일이었으나, 4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0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기타

내년부터 주세 개편...캔 맥주 415 원 ↓·병 맥주 23 원 ↑

내년부터 맥주와 탁주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는데, 캔 맥주 세금은 줄어 들고, 반대로 병 맥주 세금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주와 위스키는 지금처럼 종가세가 유지됩니다.

그동안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 '4 캔에 만원'이 가능했던 건 낮은 세금 때문이라며 세제 개편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과 국내 주류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맥주 가격에 72%나 붙어 있는 세금 체계를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으며 51년 만의 주세 개편입니다.

현행법상 국산 맥주는 과세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입니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국내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 기준이어서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종량세

개편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증가세'는 맥주 가격에 세금을 매겼지만, '종량세'는 맥주의 용량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1당 1260 원으로 445 원, 페트병 맥주는 1당 1299 원으로 39 원, 병맥주는 1당 1300 원으로 23 원 오른다. 반면 캔맥주 세부담은 1당 1343 원으로 415 원 감소한다.

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등 일부 맥주업계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1당 830.3 원에서 664.2 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기준 세금 부담은 캔 맥주가 415 원이 줄어드는 반면, 병 맥주와 페트 맥주는 늘어납니다. 생맥주의 세금 부담은 445 원 늘어나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세율을 20%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고가 맥주는 줄고, 저가 맥주는 늘어나게 됩니다.

OECD 35 개국 가운데 30 개 나라가 종량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량세 전환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4 캔에 만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주와 증류주, 약주와 청주,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의 전환 효과 등을 감안해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출처:YTN

반도체 포함 '수출 휘청'...경상수지 7년 만에 적자

지난 4월 경상수지가 6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경제 위기가 심각했던 지난 2012년 이후 계속 흑자를 기록하다가 7년 만에 다시 적자가 난 것입니다. 수출이 줄어든 것이 그 이유로 꼽히는데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5월에는 다시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 경상수지를 6억 6천만 달러 적자로 발표하자 기획재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4월 배당수지는 지난해 같은 달 63억 6천만 달러 적자보다 오히려 13억 달러 이상 개선됐습니다.

매년 4월이면 외국인 주주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때문에 배당수지는 적자를 나타내지만, 통상 상품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4월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 줄면서 여행이나 배당 등에서의 적자를 벌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반도체 호황에 가려져 있던 수출 경쟁력 약화가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외환위기 때 경험했듯이 우리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는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투자 이탈로 인한 경제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경상수지 적자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며 시장 기대심리를 관리한 영향으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소폭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과 달리, 반도체 가격 회복이 지연되거나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대중,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당국의 고민이 깊습니다.

출처:SBS

산림청·관세청, 연말까지 수입 목재제품 품질 합동단속

산림청은 관세청과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3일부터 연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단속에 참여하는 세관을 지난해 12 개소에서 16 개로 확대하고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목재제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단속 대상 업체를 무작위로 추출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내용은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 검사 적합성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부합 여부 등이다.

목재생산업 미등록, 사전 규격·품질 검사 미실시, 품질표시 방법이나 내용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시료 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 목재제품의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수입신고한 물량 전체를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머니투데이

★ KCC 1 분강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합법 벌채된 목재의 수입신고 및 검사 (법 제 19 조의 2, 제 19 조의 3)

1. 수입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다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 제재목 / 나. 방부목재 / 다. 난연목재 / 라. 집성재 / 마. 합판 / 바. 목재펠릿
2.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서류
 - (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2) 합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4) 그 밖에 합법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상업송장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법 제 20 조)

1. 규격과 품질 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 (시행령 제 19 조의 4)
가. 제재목(製材木) / 나. 방부목재(防腐木材) / 다. 난연목재(難燃木材) / 라.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 마. 집성재(集成材) / 바. 합판 / 사.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아. 섬유판(纖維板) / 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riented Strand Board) / 차. 목질바닥재
카. 목재펠릿(wood pellet) / 타. 목재칩(wood chip) / 파. 목재브리켓(wood briquet)
하. 성형목탄(成型木炭) / 거. 목탄
2. 위의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 한국임업진흥원
나.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다. 수입하려는 목재제품의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검사기관 중에서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기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검사능력이 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

라.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의 공장으로서 규격·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의 지정을 받은 공장(자체검사공장)

3. 수입통관 전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목재제품 (법 제 20 조제 2 항 단서)
다음의 목재제품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목재펠릿(wood pellet) / 2. 목재칩(wood chip) / 3. 목재브리켓(wood briquet)

4. 성형목탄(成型木炭) / 5. 목탄

김영문 관세청장, 인도와 EODES 구축 양해각서 체결

김영문 관세청장은 6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도 코치(KOCHI)에서 열리는 제 20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33개 회원국 관세청장 및 WCO 사무총장과 아태지역 관세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특송 국제우편 등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위험 관리를 주제로 참석국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또 관세청이 운영 중인 아태지역연락사무소(RILO AP), 지역세관분석소(RCL), 지역훈련센터(RTC) 등 WCO 지역기구들에 대한 운영성과와 우리나라의 개도국 능력배양 사업 등 여러 국제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김 청장은 이어 아태지역 의장국인 인도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특히 인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진행한다.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는 원산지증명서(CO)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 원산지증명서 종이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인도와의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중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번째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와의 EODES 합의로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혜택의 적용이 손쉬워져 통관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며 "이번 회의에서 아태지역 관세당국과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해외로 진출한 우리 수출기업에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통신사